

광주 전공·개원의 의료사고 부담에 '필수의료 기피'

광주시의사회 '지역 의료실태조사'

낮은 수가·미래 불확실성 등도 영향
정부 순환당직제엔 46%가 부정적
수도권 진료 의뢰 '환자 등 요구' 최대

광주 지역 전공의와 개원의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과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광주시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회원 3천243명을 대상으로 구글 폼(google form)을 통해 실시한 '광주시 지역 의료 실태조사'(응답자 506명) 결과, 전공의·개원의가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40.5%)으로 나타났다.

'낮은 의료수가'(35.8%),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15.2%), '정신적·육체적 소진에 대한 부담감'(8.1%)이 뒤를 이었다. '전공의 수련환경 열악'이라는 답변은 0.4%에 그쳤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43.3%가 '법적인 보호제도 강화'를 선택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보상 강화'(31.8%),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처우 개선'(16.6%), '업무환경 개선'(5.7%) 순이었다.

정부가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진료 보장을 위해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4개 권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의



광주시의사회와 광주전남병원회는 지난 27일 조선대병원 김동국홀에서 '광주 의료 활성화 세미나'를 열고 지역 의료 공백과 필수의료 위기 해법을 모색했다. <광주시의사회 제공>

료기관을 지정,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엔 기관지 출혈·이물질·소아급성 복부, 목포한국병원엔 응급혈관·기관지 출혈·이물질, 여천전남병원엔 소아응급비뇨기 등을 맡는 식이다.

'순환당직제가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는 질문에 긍정은 15.5%인 반면 부정은 46.7%에 달했다. 보통은 37.9%였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으로는 '당직 인력에 대한 재정적 보상 강화'(34%), '권역별 응급환자 이송체계 표준화'(27.9%),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연계'(19.2%), '지역 내 응급환자 회송 프로토콜 개발'(13.2%) 등이 꼽혔다.

이 밖에 광주 지역 의사 10명 중 8명 이상(88.2%)은 진료 환자를 전문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 직접 진료 의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의뢰한 병원은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73.4%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비5) 14.4%를 포함해 수도권으로 의뢰한 경우도 16.5%였다.

수도권으로 진료 의뢰한 이유는 '환자 및 보호자 요구'가 63.3%로 가장 높았으나 '지역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기 힘든 진료과목이나 치료법'이라는 답변도 24.5%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대기시간이 더 짧고 서비스 질이 우수하다'는 답변은 8%였다.

수도권 진료 유출을 줄이고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 인력 확충(36%)'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및 회송체계 활성화(20.4%)'와 '지역 내 진료의뢰에 대한 제도적 유인방안 마련(15.6%)'도 주요 방안으로 택했다.

광주에 공공의료원이 들어설 경우 최우선 진료 분야로는 심뇌혈관질환(31.3%)이 선정됐다. 3개까지 중복으로 답변한 해당 문항에서는 감

염병 대응(17.1%), 응급의료(16.3%),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15.8%), 분만 및 소아의료(5.8%)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광주시의사회와 광주전남병원회가 지난 27일 조선대병원 김동국홀에서 개최한 '지역 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광주 의료 활성화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세미나에서 지역 의료진들은 처방전에 의약품 이름 대신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국회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

시의사회는 "의사의 처방권은 단순한 직능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국회와 정부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수희 기자

광주시의사회 '희망나눔콘서트'

11월7일 조선대...소향·송골매 등 출연
수익금 백혈병 환우·고려인 진료소 지원

광주 지역 의사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우 등의 지원을 위해 콘서트를 마련했다.

30일 광주시의사회에 따르면 오는 11월7일 오후 7시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제3회 희망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

희망나눔콘서트는 시의사회와 조선대학교, 고려인을 사랑하는 의료인 모임이 주최한다.

콘서트 무대에는 소향, 최성수, 구창모, 송골매 밴드가 올라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풍성한 음악을 선사한다.

시의사회는 수익금 전액을 백혈병 소아암 환우와 고려인 진료소를 위해 사용한다.

공연 티켓은 S석 11만원, G석 8만원이며 광주시의사회(062-520-2101)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최정섭 광주시의사회장은 "가을밤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번 콘서트가 환우들에게 희망을, 고려인 진료소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사회 소속 의사 60여명은 치과 의사회, 약사회, 목포시의사회, 간호사, 의대생, 간호대생 등과 함께 매주 화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월곡동 고려인진료소에서 중앙아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몽골에서 온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봉사를 8년째 이어오고 있다. /기수희 기자

"암생존자 정기검진 방해 요인 불안 아닌 지원 부족"

화순전남대병원 김미리·최유리 교수팀 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연제'상

암 생존자의 정기검진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 '재발 불안'이 아닌 '의료·심리·생활 지원의 공백'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30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가정의학과 김미리·최유리 교수팀(1저자 김미리·교신저자 최유리)은 최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발표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암 생존자의 건강검진 참여에 대한 재발 두려움과 미충족 욕구의 매개효과(Unmet Needs Mediate the Impact of Fear of Canc



김미리 최유리

er Recurrence on Screening Participation Among Cancer Survivors: A Cross-Sectional Study)이다.

연구팀은 암 치료 이후 정기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연령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암 생존자일수록 검진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재발 두려움(Fear of Cancer Recurrence)'은 검진 참여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재발 불안이 클수록 의료·심리·생활 영

역에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미충족 욕구(Unmet Needs)'가 증가했고, 해당 욕구가 많을수록 정기검진 참여율은 유의하게 낮아짐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암 생존자의 정기검진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발 불안을 단순히 완화하는 방식보다 의료·심리·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미충족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줬다.

김미리 교수는 "암 치료는 끝났지만 환자의 일상은 계속된다. 재발 걱정 속에서도 의료·정신·생활 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암 생존자의 삶의 질과 건강관리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전남대병원·건보공단 등 진도서 의료봉사

심평원·광주약사회·수자원공사 등도 주민 200여명 대상 맞춤형 진료 실시

전남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등이 최근 진도군 고군면에서 '유관기관 합동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30일 전남대학교병원 등에 따르면 이번 의료봉사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도군은 8세 이상 인구 비율이 48.9%(25년 6월 기준)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봉사는 고군면 노인회관에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접수부터 진료, 검사, 치료까지 한 번에 받

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이뤄졌다.

전남대병원은 순환기내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4개 진료과 전문의와 간호사, 행정 인력을 포함해 10여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상담과 함께 순환기내과 초음파 검사, 재활의학과 주사치료, 이비인후과 내시경 검사, 치과 발치 및 신경치료 등 세분화된 진료를 제공했다. 또 필요한 환자에게는 의약품도 지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의료차량과 지원 인력을 파견해 원활한 진료 환경을 조성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 간호 인력을 제공했다. 광주약사회는 의약품 후원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스마트음수대를 설치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등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 /기수희 기자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